

# ‘트로트가 무어나고 물으신다면’...장유정 “위로쇼”

트로트 바람속 트로트 논쟁·왜색 시비 분석

‘왜색 딱지’ 이미지 ‘동백아가씨’ 통념과 달라

장유정 ‘어머나’로 트로트→전 세대에 인기

“누군가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TV에서 온통 트로트만 나온다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트로트가 받았던 오해와 편견, 그 속의 펍박과 설움을 감안하면 지금 트로트의 열풍을 좀 참아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영원한 것은 없을 테니, 언제까지나 트로트의 열풍이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340쪽)

장유정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가 최근 펴낸 ‘트로트가 무어나고 물으신다면’은 ‘트로트 광풍’에 지친 이들을 위한 훌륭한 처방전이다.

‘웃음과 눈물로 우리를 위로한 노래의 역사를 부재로 단 이 책은 왜 갑자기 ‘트로트 바람’이 불게 됐는지를 톺아본다.

한때 촌스럽고 천박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트로트. 대중가요사에서 트로트는 몇 차례 논쟁의 중심에 섰다. 그것은 모두 트로트의 뿌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바로 ‘왜색 시비’다.

최초의 트로트 논쟁은 1964년에 발표된 이미자의 명곡 ‘동백아가씨’에서 시작됐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 노래는, 이듬해 돌연 ‘방송 금지곡’이 됐다. 한일수교를 앞둔 군사정부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동백아가씨’에 ‘왜색’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는 것이었다는 기존 통념이

다. 하지만 장 교수는 당시의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

서양 음악 전공자, 방송국 음악 담당 실무자 등 이른바 ‘음악 엘리트’들이 ‘동백아가씨’의 인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방송 금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때 그 음악 엘리트들이 ‘동백아가씨’를 비판한 근거가 바로 ‘왜색’이었다.

이때 찍힌 왜색이라는 낙인은 1980년대 후반 노래 운동의 하나로, 대중음악을 연구·평론한 이들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 “트로트는 체제 순응적인 거짓의 노래로, 일제가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식시킨 갈래”라고 주장한 것이다.

### 트로트는 엔카인가?

장 교수는 “트로트가 왜색의 노래라는 주장에는 트로트가 일본 전통음악인 엔카와 같은 갈래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트로트는 엔카인가? 장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엔카’는 연설을 노래로 만든 ‘엔제쓰카(演説歌)’, 즉 메이지 10년대(1877~86)에 일본에서 자유민권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만든 노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엔카라 불리던 노래는 오늘날 우리가 엔카라 알고 있는 노래와는 다르다.

1920년대 초기와 1930년대 재즈와 여타 서양 음악 장르를 받아들여 일본화한 갈래가 1960년대 이후에 ‘엔카’로 명명된 것이다.

즉, “일본에서 서양 음악을 받아들여 일본화하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도 서양 음악과 일본 음악을 받아들여 한국의 대중음악이 탄생한 것”이라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그러나 한국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 그리고 지식인 계층의 엘리트 의식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트로트라는 갈래를 우리 노래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사실 트로트는 멀고 가까움이 있을 뿐 우리 가장 안에서 삶을 보내고 있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재건에 힘쓰던 1960년대에는 향토적인 정서와 도시 지향적인 정서가 공존했고, 마침 이미지와 배후가 있었다. 장 교수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향한 입을 그리며 고향 여성을 이미지가 대변했다면, 화려한 도시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남성은 배후가 상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데뷔해 1970년대를 주름잡았고 지금까지 건재한 남진과 나훈아가 있다. 1970~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에는 포크와 록이 대유행했는데, 트로트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록 트로트가 탄생했다. 송대관의 ‘해 뜬 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

네, 윤수일(과 송사방)의 ‘사랑만은 앓겠어요’ 등이다.

두 여성 트로트 가수는 국민 트로트를 선보였다.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와 김수희의 ‘남행열차’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의 가요계에서 김연자, 주현미로 상징되는 ‘트로트 메들리’, 그리고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의 ‘트로트 4인방’을 빼놓을 수 없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성인이 즐기는 유희의 노래로 한정되던 트로트가 다시 전 세대가 즐기는 노래가 된 것은 장유정이 ‘어머나’를 들고 나온 2000년대 들어서다.

### 트로트의 생명력은 “다양성 변신 가능하다는 것”

10대들은 아이돌 멤버들이 부르는 트로트를 같이 불렀고, 노년 세대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백세인생’을 노래했다. 장 교수는 “그렇게 세력을 넓혀가던 트로트가 ‘미스투트’ 진 송가인과 ‘미스터트롯 7인방’에서 폭발했다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여기서 장 교수는 의문을 던진다. 록 트로트라니 재즈 트로트라니 댄스 트로트라는 이름을 따갈 수 있는 이 노래들이 과연 하나의 갈래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다.

“노래하는 교수”로도 유명한 장 교수는 “바로 이런 다양성,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트로트의 생명력”이라고 단언한다. 또 다소 유치할 수 있는 트로트의 노랫말에는 우리를 달래주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다고도 강조했다. “감정 과잉의 고갱이를 보여주는 트



로트는, 때로 누군가가 집에서 보내는 일상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트로트를 듣고 부르며, 우리는 세대 공감과 소통을 경험하고 정서적

공동체도 회복했다. 단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트로트다.”

## 넷플릭스, 이수근의 스탠드업 코미디 ‘눈치코치’ 제작

관객들 고민 상담하며 쏟아내는 애드리브 담아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개그맨 이수근과 함께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이수근의 눈치코치’를 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만 보다 세월 다 가는 관객들의 고민을 이수근이 상담하며 쏟아내는 애드리브를 담아낸다.

이수근은 KBS 2TV ‘개그콘서트’

뉴스

에서 ‘고음불가’와 ‘키웠으면’ 등 코너를 잇달아 성공시켰고 이후 예능 ‘1박 2일’을 통해 인기 예능인이 됐다. ‘아는형남’, ‘무엇이든 물어보살’, ‘신서유기’, ‘도시어부’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지만 스탠드업 코미디 도전은 데뷔 2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케빈 하트: 왓 나우?’, ‘엘런 디제너러스: 공감능력자’, ‘에이미 슈머: 가족 의상 스페셜’ 등 해외 최정상급 코미디언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여왔다.

국내에서는 ‘박나래의 농염 주의보’에 이어 ‘이수근의 눈치코치’ 제작을 확정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측은 “이수근의 눈치코치”는 관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성된다”며 “KBS 공개 개그맨 출신이다 탄탄한 공개 코미디 내공과 패부를 찌르는 사이드 같은 애드리브가 빛을 발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 신혜성, ‘음악 오디세이’ 하차...“여러분 덕분에 행복”

약 1년9개월간 활약

그들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SBS 라디오 ‘음악 오디세이’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전했다.

신혜성은 지난 21일 SBS 러브 FM ‘음악 오디세이’의 마지막 방송을 통해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성디’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신혜성은 “항상 부족한 저 ‘성디’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1년9개월간 SBS 라디오 ‘음악 오디세이’에서 DJ로 활약한 신혜성은 따뜻한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 감미로운 목



소리로 매일 밤 청취자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물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성디 절대 못보낸다”, “벌써 보고 싶다. 성디 그동안 고맙습니다”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도 “DJ

하차 소식을 전달드리게 돼 매우 아쉽다. 첫 방송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를 청취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분들과 오랜 시간 배려해주신 오디세이 제작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 대만 인기드라마 ‘상견니’ 한국판 제작한다

8년간 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과 12주간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기록

대만 인기 드라마 ‘상견니’의 한국판이 제작된다.

기획사 엔피오엔터테인먼트와 리안컨텐츠가 “대만 폭스네트워크그룹, 신펜제작의 대만 인기 드라마 ‘상견니’의 리메이크 관련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판 제작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상견니’는 남자친구 왕취안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를 그리워하는 황위시안이 우연히 선물 받은 휴대용 카세트통을 통해 1998년으로 돌아가 왕취안성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리즈웨이를 만나며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대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간기봉과 인촌혜가 공동 집필하고 황천인 감독이 연출했다.

‘상견니’는 2019년 11월 대만 지상

파 중시(CTV) 방송 당시, 25~49세 여성 대상 평균 시청률 4.16%로 8년간 방송된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과 12주간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대만 폭스네트워크그룹 스타차 이니스채널(SCC) 방영시 최종회는 25세부터 49세 여성 최고 평균시청률 1.01%로, 전체 평균시청률은 SCC 13년 드라마 최고 시청률 돌파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은 ‘상견니’는 해외 드라마 중 유일하게 한국의 모든 OTT에 들어간 화제작으로 국내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높다.한국에서 지난해 4월 케이블 TV 채널 WeLike를 통해 전파를 뒀고, 웨이브 방송 당시 아시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상견니’의 한국 리메이크 관련 확



보를 위해 한국 굴지의 방송사와 유수 드라마 제작사들이 관련 계약에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 ‘미스트롯2’ 결승전 실시간 문자 투표 산정 방식 공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 결승전 실시간 문자 투표 산정 방식이 공개됐다.

‘미스트롯2’ 제작진은 “이제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만이 남았다. 톱7 모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작진 또한 시청자 여러분이 실시간 투표를 통해 뽑아주시길 최후의 트롯여제의 탄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결승전은 1라운드와 2라운드로 각각 한 주씩 나눠 각각 실시간 문자 투표를 받은 후 현장 마스터 점수 그리고 대국민 응원투표를 더해

‘진’을 선발한다.

결승전 평가 방식과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배점은 1월1일부터 생방송 전날인 24일 11시 59분까지 시청자가 SNS를 통해 참여한 대국민 응원 투표의 누적 득표수를 반영, 1등 1200점 만점 기준으로 순위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생방송 진행 중 응원하는 참가자의 기호와 이름을 문자로 보내 투표하게 되며, 1등 1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득표에 따라 차등 배점 된다.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와 1, 2라운드 경연 결과를 합산해 가장 많

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미스트롯2’ 최종 진으로 뽑힌다.

지난해 방송된 ‘내일은 미스트롯’ 결승전 생방송 당시 급작스럽게 770만 건이 넘는 문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조유아의 사태 방지를 위해 문자 투표 업체와 수차례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을 통한 ‘나만의 트롯여제’를 뽑는 제 8차 대국민 응원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1일 1회, 1인당 3인을 중복 투표하는 방식이며 추후 결선 점수에 반영된다.